

## 대부분 업종 큰폭 상승 인쇄는 마이너스 성장

올 들어 대부분의 업종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인쇄업종은 오히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산업생산 지수가 전년 2월보다 16.6%나 급증하면서 3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월의 4.6%는 물론 작년 같은 달의 9.9%, 작년 연간 평균인 5.1%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 부문의 생산은 전달보다 무려 55%가 늘었고 자동차(19.1%), 철강이 포함된 1차금속(15.1%), 화학(9.3%) 등도 호황을 지속했다.

이처럼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회복을 타고 수출이 작년 하반기 이후 활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복모피(-8.7%), 가죽신발(-14.2%), 인쇄출판(-8.3%), 섬유(-1.6%) 등은 마이너스였고 음식료업(5.7%)은 평균 산업생산 증가율을 밑도는 등 취업 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2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설비투자과 소비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 인쇄대금 회수기간 143.2일 걸러

중소기업이 제품을 판 뒤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1천5백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4분기 판매대금 결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제품을 판 뒤 어음으로 받는 경우 현금화하는 기간(수취기일과 결제기일 포함)이 134.7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4.4분기보다 1.7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일이 더 길어진 것이다.

이 같은 어음회수기일은 기협중앙회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2년 2/4분

기(128.2일) 이후 줄곧 길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151.9일)과 제1차 금속산업(151.5일)의 총회수기일은 5개월이 넘었다.

섬유제품은 143.8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과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은 각각 143.2일, 종이 및 종이제품은 142.8일, 의료정밀 광학기기 시계는 142.5일로 조사됐다.

한기운 기협중앙회 상무는 "중소기업은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부진과 원자재가격상승에 판매대금회수기간 장기화까지 겹쳐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대금 결제형태는 현금 56.3%, 어음 43.7%로 전분기와 같았으며 1년전에 비해선 어음결제비중이 1.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송인동·방산시장 일대 현대식 인쇄 단지로 조성

올 10월에 서울 청계천 주변재개발 지역인 종로구 송인동과 중구 방산시장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현대식 인쇄 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이 2005년 9월 복원되는 청계천과 조화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모양, 형태 뿐 아니라, 간판의 모양과 크기까지 지구단위계획에 꼼꼼히 못박을 예정이다. 또 좁고 골목져 차량 통행이 쉽지 않았던 골목길이 곧게 펴지고, 청계천 변에 위치한 건물은 안쪽으로 조금씩 후퇴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민 동의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로 작업에 나서 내년 8월까지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계천 일대 재개발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과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청계천 도심부 발전계획을 보면, 시는 청계천 일대를 22개 구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과 개발방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쇄·포장·출판 관련 업체가 몰려 있는 방산

시장 일대는 도로정비와 시장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현대식 인쇄 단지'로 거듭난다. 또 명확한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송인동은 일단 흥축한 모양의 삼일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심 기능에 맞는 새 용도의 건물의 신축을 유도한다. 서린·무교·다동지역은 호텔이나 컨벤션시설 등이 들어서고, 세운상가 주변에는 정보기술(IT)·주거·업무·엔터테인먼트 등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동대문운동장 2만5천여평은 일단 공원으로 조성하되, 장기적으로는 지하에 환승 물류센터나 환승센터가 검토된다.

## '2004 중소기업 지원 가이드' 발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 「2004 중소기업 지원 가이드」를 발간했다. 중소기업인들이 각종 지원내용을 한 눈에 알기 쉽도록 구성된 책자는 자금 지원, 신용 보증 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인력확보지원, 창업 지원, 세제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정리해 놓았다. 자금지원부문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조5천여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비롯하여 정부와 각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금, 16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 그리고 지원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이외에 정통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시행하는 출연금과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구입신청 및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팀(02-769-6627)으로 하면 된다.

## 문화부 정책결정과정 인터넷 공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세부 진행과정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문화관광부는 4월8일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문화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책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주요 정책의 결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3단계 조치로 언론과 시민단체,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개최준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출판유통 현대화 지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조성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등 30개 주요 정책을 홈페이지(www.mct.go.kr)의 '정보공개 자료방'에 올려놓았다.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모집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청년실업난을 덜어주기 위해 500명의 해외시장 개척요원을 추가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5월4일까지며 5월 중순에 서류심사 및 면접이 실시된다. 신청대상은 미 취업자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중국어·스페인어·불어·독일어·아랍어·러시아어 등 특수언어 및 이공계 대학 출신자를 우대한다.

개척요원에게는 국내교육비·왕복항공료 전액과 해외체제비·활동비(월평균95~108만원)를 지급한다. 요원들은 6주간의 국내교육을 받은 뒤 8월 중순부터 KOTRA 해외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에 4개월 간 파견돼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다.

##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 회사 설립

문화관광부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문화산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한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4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 2004년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금융계와 공동으로 자본금 2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완성보증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

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중 완성보증보험회사의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관광부, 전경련, 회계법인, 법무법인, 보험사, 은행, 창투사, 제작사, 투자·배급사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결성, 도입형태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信保 부실예측시스템 도입

신용보증기금은 4월 12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도산 등 부실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는 '부실징후예측시스템'을 도입해 신용평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부실징후예측시스템은 신보가 국내 50만여 중소기업의 재무정보 분석자료를 활용해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국내 실정에 알맞게 새로 구축한 것이다.

신보는 "부실징후예측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재무비율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자금 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지금처럼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고용 창출이 수반되는 창업을 적극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신 성장산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4분기(4~6월) 말부터는 투자와 내수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 중소기업 결의대회 고 대통령권한대행 참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4월 8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고 권한대행은 이날 치사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통일부 개성공단 입주업체 선정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엄격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4월 8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업체들은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10여개 미만 기업체의 입주라 하더라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업자가 복측과 합의한 1600만 달러 중 도로와 출입사무소는 우리 기업인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개발 범위 내에서 현물로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 작업환경 개선에 197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열, 냄새, 분진 등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개사에 모두 19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된 장비의 내용을 중소기업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수요 희망업체를 접수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 과제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정부출연금에 할당된다.

## 환경신기술 기업 정부지원 확대

올해부터 기업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가점 부여, 환경신기술 마크 도입, 신기술 산업화자금 지원 확대 등의 촉진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 입찰시 환경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찰평가 총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신기술에 "환경신기술 마크"를 부여해 환경신기술의 우수성을 시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종과세제도개선 요구

재계가 기업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이 창업이나 투자유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 관련 종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제출하고 기업상속세 할증과세(10~30%)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이자 비용처리 허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적용, 수도권 공장 신·증축 등에 대한 지방세 종과세(3~5배) 폐지 등도 건의했다.

상의는 선진국의 경우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대상 우대장치를 뒤 영국은 상장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50%,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0% 전액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해 30~50%(대기업 30%, 중소기업 40~50%)의 상속세를 덜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는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

는 20%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각각 15%,10%)를 할증해 상속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다.

## 총주대 중소기업 기술지도 대학 선정

충북 총주시 국립 총주대학교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올해 중소기업 기술지도 대학(TRITAS)으로 선정됐다. 총주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지도 사업은 정부와 대학, 기업체간 삼각 협력 체제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능력과 열의가 있는 대학을 지정, 기술지도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주대는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지원은 물론 학생들을 산업현장에 보내 실습과 실험을 직접 경험토록 해 취업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교수들의 신기술 개발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도 대학 선정은 지역 기업의 품질개선과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연봉제 모델 무료제공

인사조직 전문 컨설팅회사인 오즈컨설팅(대표 최명돈)은 "중소기업형 연봉제모델"을 개발,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모델은 급여체계뿐만 아니라 연봉제에 따른 평가체계 변화와 승급체계 개선 방안도 담고 있어 효과적인 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명돈 대표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싶지만 제도를 설계할 전문인력이 없고 컨설팅을 받을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 중소기업형 연봉제 모델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즈컨설팅은 인터넷지원센터(www.osm.or.kr)를 통해 제도 도입과 운용에 필요한 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오즈컨설팅은 지난 1997년 설립돼 기아특수강 일동제약 신세계건설 고려아연 등에 인사관리 및 직무

관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했다.

## 기업은행 신용불량중소기업 지원

기업은행은 신용 불량 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들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용불량기업 신용정상화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주요 대출 대상은 대출금이 연체돼 주의거래처로 기업은행에 등록돼 있으나 다른 금융기관에는 연체가 없는 개인 사업자들로 오는 6월30일까지 연체 대출금의 5% 이상을 자진 변제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 거치 후 최장 7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동일인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지만 통상적 대출 조건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개인 사업자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라고 밝히고 "대출금을 지원 받은 뒤 성실하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금리감면 혜택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골판지조합 B2B사업 본격화

골판지포장조합이 우체국택배 포장상자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키로 하는 등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경북 성주와 칠곡지역에 참외포장용 골판지상자 80억원 어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한 데 이어 지역별 체신청에도 우체국택배 포장용 골판지상자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지역체신청과 전북지역체신청, 강원지역체신청 등과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부산지역체신청 등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골판지포장산업 전자상거래 시범사

업자인 골판지조합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골판지포장 포털사이트인 'Corpia'를 개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원자재 가격예시제 제안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최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자재난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원자재난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원자재를 수입·공급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원자재 공급자인 대기업이 향후 1년 간의 원자재 가격전망을

제시해 주는 ‘원자재 가격 예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조를 통해 상생해야 하지만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에 시달리는 등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은 중소기업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책개발기능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최고

중소·벤처기업 절반 가량이 현 상황에서 4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으며 기능직, 기술·연구직 등 생산직 인력을 가장 필

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연합회 및 벤처기업 79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에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4.7%가 ‘현 상황에서 신규채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업체당 평균 4.0명, 기존 일자리 수 대비 4.9%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중소기업 전체에 적용할 경우, 약 10만 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자리 수요를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34.8%), 기술·연구직(27.9%) 등 생산직이 62.7%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 19.9%, 마케팅·영업직 10.0%, 사무직 7.4% 등이었다. 채용 희망 인력을 경력별로 보면 경력자가 50.3%, 신입이 49.7%를 각각 차지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신입직의 학력으로는 고졸이 54.4%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39.1%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인쇄신문



WWW.

printingkorea.

인쇄와 관련된 각종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or.kr

대한인쇄문화협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26 TEL : 335-5881~3 FAX : 338-9801